



어리석은/우리의 질문에  
성경이 답한다.

## 5강 복음서 속의 어리석은 질문에 성경이 답하다 3

### [오늘의 어리석은 질문]

1. 예수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실까? 그가 타고 오시는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마 24:30)
2.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눅 22:7-20)
3. 왜?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하나요? (마 12:8)

☺ 어리석은 질문1. 예수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실까? 그가 타고 오시는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마 24:30)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 24:30

- 💡 우리의 질문1. 예수님이 구름을 타지 못하실까?
2. 성경에서 구름이 비유적으로 육체(사람)나 영을 의미하는 것인가?
  3. 성경에서 구름은 어떤 상황에서 많이 나오는가?
  4. 다니엘 7:13-14이 초림의 사건을 예언한 것인가?
  5. 예수님의 영이 특정인에게만 임하는 것인가?

### 📖 성경의 답

1.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마 14:25, 새번역
2.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그러므로 구름 때같이 엄청나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히 12:1, 개역개정(새한글)
3.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옛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렛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출 24:16, 새번역  
“선물을 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 잠 25:14, 새번역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 17:5, 새번역
4.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 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단 7:13-14, 새번역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 계 1:7, 새번역
5.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요일 4:13-15, 새번역

❖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구름을 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성경에서 구름을 육체나 영으로 비유한 적이 없다. 성경에서 구름은 대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신적 운반체로 쓰인다. 다니엘의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것이다. 예수의 영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한분 성령님이다.

☺ 어리석은 질문2.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눅 22:7-20)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눅 22:7-8

💡 우리의 질문1. 위 구절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나오는가?

2. 가롯 유다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3.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유월절인가? 새언약이 유월절인가?

📖 성경의 답

1.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행 4:12, 새번역

“간수는 …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행 16:29-31, 새번역

2. “그러나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눅 22:21, 새번역

3.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전 11:23-26, 새번역

☼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교리는 비성경적인 주장이다. 구약의 유월절 방식을 그대로 지키지도 않는다. 가롯 유다도 유월절을 지켰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구약의 희생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사해주시는 ‘새언약’을 주셨다. 유월절이 아닌 예수님 자체가 ‘새언약’이다.

☺ 어리석은 질문3. 왜?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하나요? (마 12: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8

💡 우리의 질문1.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아직도 유효한가?

2.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으니 우리도 지켜야 하는가?

3. 신약의 ‘주의’ 날이 안식일을 가리키는가?

4. 일요일에 예배드리면 우상 숭배가 되는가?

📖 성경의 답

1.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호 2:11, 개역개정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엡 2:14-16, 새번역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빛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골 2:14-17, 새번역

2. “아기에게 할례를 시행할 8일이 다 차서,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다. 뱃속에 아이를 가지기 전에 천사가 붙여 준 이름이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의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들은 주님께 바치려고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눅 2:21-22, 새한글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막 6:2, 새번역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갈 4:4-5, 새번역

“바울은 늘 해 오던 대로(관례대로) 그들한테 들어갔다. 그리고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두고 그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행 17:2, 새한글

3. “주님의 날에 나는 성령님 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 1:7, 새한글

“주간의 첫 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행 20:7, 새번역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전 16:2, 새번역

“그런즉 옛 관습을 따르던 사람들은 희망의 새로움을 얻게 되었으며 차후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생명의 주를 통하여 살아난 '주의 날'에 맞추어 그들의 생활을 개조하는 것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 9절 AD 107년)

4. AD 321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에 모였는데, 공휴일이 아니었기에 보통 밤에 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정치적인 나라의 통합을 위하여 “모든 재판관과 시민 그리고 기술자들은 존엄한 태양의 날에 쉬어야 한다”(교회사 핸드북)는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은 이교도들에게는 태양을 섬기는 날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일을 휴업일로 만들어 줌으로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교회가 안식일을 지켰다가 강제로 주일로 변경되었다면, 수많은 순교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

“이교도들이 이 날을 태양의 날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도 그 호칭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 나타나시고 공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이날이기 때문이다”(제롬)

❖ 구약시대의 안식일과 절기 규정은 신약 시대에 폐지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신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는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짓는 율법을 십자가로 소멸하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나 제자들, 바울이 규례대로,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 다음 강의 : 서신서 속에 어리석은 질문에 성경이 답하다 1 ]

😊 어리석은 질문. 성경의 순리 배도, 멸망, 구원을 아니? (데살로니가후서 2:3)

Q A 우리의 질문을 보내 주세요.



문자 / 카톡 / 댓글  
4월 20일(주) 부활주일까지

Q A 우리의 질문을 보내 주세요.



문자 / 카톡 / 댓글  
4월 20일(주) 부활주일까지

다음 강의는 한 주 쉬고 4월 27일(주)에 나갑니다.